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성·청송·영덕 지역구

김재원 55.1%·김태한 12.5%·우병윤 11.2%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김재원... 영덕군 60.1%·의성군 55.2%·청송군 48.1%

김태한... 의성군 17.5%·청송군 9.9%·영덕군 7.1%

우병윤... 청송군 21.6%·의성군 8.9%·영덕군 7.2%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지역 국민의힘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재원 55.1%, 김태한 12.5%, 우병운 11.2%, 강성주 6.8% 순으로 조사됐다.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지역에서 군위군이 지난해 7월 대구시에 편입되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을 제외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지역민들의 민심을 알아 보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경향투데이와 뉴스메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국회의원직단, 정당지지도 등에 대해 지난 17일, 18 일 당일간의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후보자 지지도에서 국힘 김태환 전 국회의원 최고위원 52.5%, 국힘 김태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12.5%, 국힘 우병준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11.2%, 국힘 강성주 전 윤석열후보 IT본부 상임부본부장 9.6%, 무소속 심태성 현 상삼수선 대표 1.6%, 기타 2.3%, 없음 4.8%, 잘못 모름 5.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지지도에서는 남성은 김재원 55.1%, 김태한 12.3%, 우병운 10.6%, 강성주 7.8%, 심태성 1.1%, 기타후보 3.2%, 없음 5.5%, 모름 4.3% 여성은 김재원 50.0%, 김태한 12.7%, 우병운 11.7%, 강성주 11.4%, 심태성 2.2%, 기타후보 1.5%, 없음 4.0%, 모름 6.5%으로 드러났다.

또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8-20대는 김재원 24.0%, 우병운 22.1%, 강성주 7.5%, 김태한 12.5%, 심태성 2.0%, 기타후보 4.2%, 없음 17.2%, 모름 10.5% 30대는 김재원 38.7%, 김태한 17.7%, 강성주 11.9%, 우병운 8.5%, 심태성 4.1%, 기타후보 6.3%, 없음 7.6%, 모름 5.3% 40대는 김재원 50.2%, 김태한 16.2%, 강성주 9.1%, 우병운 5.1%, 심태성 1.4%, 기타후보 1.6%, 없음 11.9%, 모름 4.5% 50대는 김재원 55.0%, 김태한 15.8%, 우병운 13.0%, 강성주 3.9%, 심태성 1.3%, 기타후보 1.4%, 없음 4.3%, 모름 5.3% 60대는 김재원 54.7%, 우병운 13.2%, 김태한 11.4%, 강

성주 8.1%, 심태성 1.8%, 기타후보 3.7%, 없음 3.2%, 모름 3.7% 70세 이상은 김재원 58.4%, 강성주 13.9%, 김태한 9.7%, 우병윤 8.7%, 심태성 1.2%, 기타후보 0.9%, 없음 1.2%, 모름 5.9%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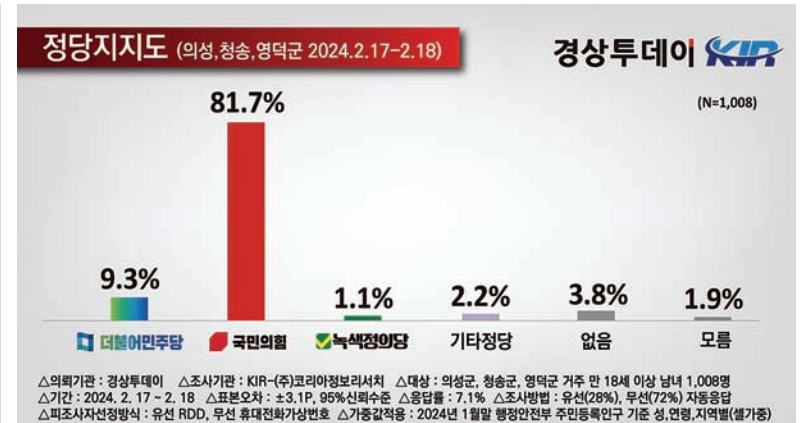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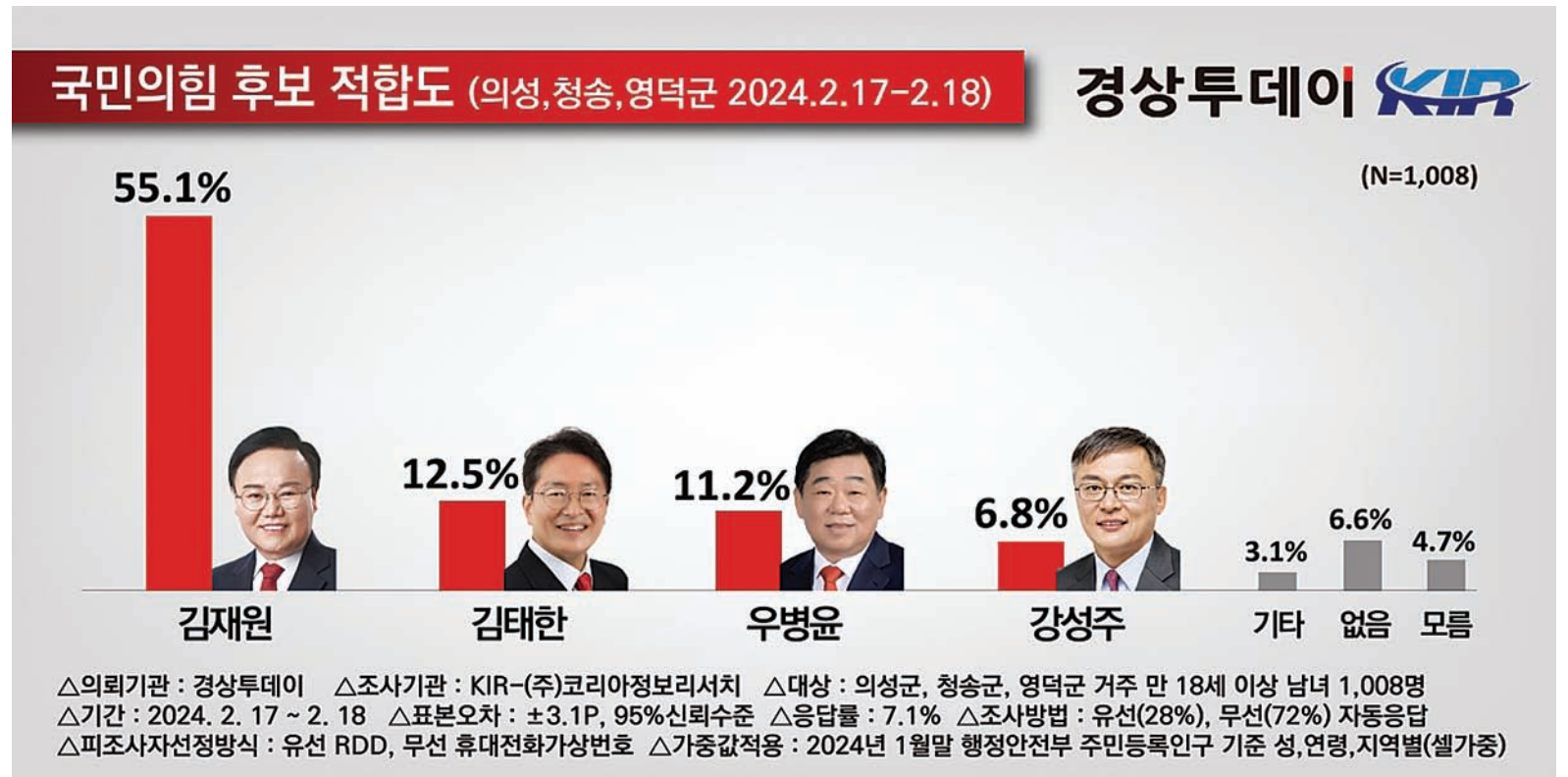
지역별 지지도는 이성군은 김재원 54.2%, 김태한 18.1%, 우병운 7.7%, 강성주 6.6%, 심태성 1.7%, 기타후보 2.3%, 없음 4.4%, 모름 5.0% 청송군은 김재원 46.1%, 우병운 22.5%, 강성주 10.8%, 김태한 8.4%, 심태성 2.5%, 기타후보 1.6%, 없음 4.7%, 모름 3.3% 영덕군은 김재원 54.6%, 강성주 13.3%, 우병운 8.3%, 김태한 7.1%, 심태성 0.9%, 기타후보 3.0%, 없음 5.2%, 모름 7.6%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81.7%, 더불어민주당 9.3%, 녹색정의당 1.1%, 기타정당 2.2%, 없음 3.8%, 모름 1.9%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78.6%, 더불어민주당 11.1%, 녹색정의당 0.7%, 기타정당 2.8%, 없음 5.3%, 모름 1.6% 여성은 국민의힘 84.7%, 더불어민주당 7.6%, 녹색정의당 1.6%, 기타정당 1.6%, 없음 2.4%, 모름 2.2%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만18~20대는 국민의힘 62.6%, 더불어민주당 13.9%, 녹색정의당 0.0%, 기타 정당 8.5%, 없음 12.9%, 모름 2.2% 30대는 국민의힘 78.1%, 더불어민주당 14.8%, 녹색정의당 0.0%, 기타정당 1.2%, 없음 4.5%, 모름 1.5% 40대는 국민의힘 75.0%, 더불어민주당 17.0%, 녹색정의당 0.0%, 기타정당 2.6%, 없음 4.3%, 모름 1.1% 50대는 국민의힘 80.9%, 더불어민주당 8.1%, 녹색정의당 0.8%, 기타정당 3.6%, 없음 4.4%, 모름 2.2% 60대는 국민의힘 86.3%, 더불어민주당 7.2%, 녹색정의당 1.2%, 기타정당 1.4%, 없음 3.3%, 모름 0.6% 70세 이상은 국민의힘 84.9%, 더불어민주당 7.5%, 녹색정의당 2.0%, 기타정당 0.9%, 없음 1.8%, 모름 2.9%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지지도에서는 의성군은 국민의힘 81.0%, 더불어민주당 11.6%, 녹색정의당 0.9%, 기타정당 2.5%, 없음 2.6%, 모름 1.5%



청송군은 국민의힘 81.2%, 더불어민주당 9.0%, 녹색정의당 0.4%, 기타정당 2.2%, 없음 5.4%, 모름 1.8% 영덕군은 국민의힘 83.2%, 더불어민주당 6.2%, 녹색정의당 2.1%, 기타정당 1.7%, 없음 4.4%, 모름 2.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적합도에서 김재원 55.1%, 김태한 12.5%, 우병운 11.2%, 강성주 6.8%, 기타 3.1%, 없음 6.6%, 모름 4.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김재원 53.8%, 김태한 15.1%, 우병운 12.0%, 강성주 5.9%, 기타후보 3.1%, 없음 7.6%, 모름 2.6% 여성은 김재원 56.4%, 우병운 10.4%, 김태한 10.1%, 강성주 7.7%, 기타후보 3.1%, 없음 5.6%, 모름 6.6%로 조사됐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는 만 18-20대 김재원 25.8%, 김태한 18.9%, 우병윤 17.4%, 강성주 8.9%, 기타후보 5.4%, 없음 19.3%, 모름 4.

3%이며, 30대는 김재원 44.0%, 김태환 20.1%, 강성주 9.0%, 우병운 7.4%, 기타후보 9.4%, 없음 7.8%, 모름 2.3% 40대는 김재원 48.3%, 김태환 17.3%, 우병운 7.0%, 강성주 4.1%, 기타후보 4.7%, 없음 14.2%, 모름 4.4% 50대는 김재원 54.3%, 김태환 15.7%, 우병운 13.5%, 강성주 4.5%, 기타후보 1.8%, 없음 6.9%, 모름 3.3% 60대는 김재원 55.8%, 우병운 14.5%, 김태환 11.4%, 강성주 6.7%, 기타후보 3.0%, 없음 5.3%, 모름 3.3% 70세 이상은 김재원 64.8%, 우병운 8.1%, 강성주 8.0%, 김태환 7.8%, 기타후보 1.8%, 없음 2.4%, 모름 7.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의성군은 김재원 55.2%, 김태한 17.5%, 우병윤 8.9%, 강성주 6.3%, 기탁후보 2.7%, 없음 6.0%, 모름 3.5% 청송군은 김재원 48.1%, 우병윤 21.6%, 김태한 9.

9%, 강성주 6.2%, 기타후보 5.0%, 없음 7.3%, 모름 2.0% 영덕군은 김재원 60.1%, 강성주 8.0%, 우병운 7.2%, 김태한 7.1%, 기타후보 2.4%, 없음 6.9%, 모름 8.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향투데이와 뉴스메타 공동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2월 17일, 18일 이틀간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28%), 휴대전화 가상번호(72%)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7.1%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pm 3.1\%$ 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성수·박노환·조영국 기자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유치
(기초지자체 중 최초 개최)

글로벌 대구경북신공항
배후 중심도시로 도약

2024년 경북도민체전,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개최

새 희망 **구미시**대

글로벌 명품 스포츠 도시로 도약!

GUMI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25년 5월 구미시 개최

41만 구미 시민의 염원에 힘입어 2025년 5월,
구미시에서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펼쳐집니다



구미시



박형수 “영주·영양·봉화 이별 슬퍼… 그간 성원에 감사”

선거구 확정에 따른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 출마 발표
4개 지역 군수와 협력해 新성장동력 만들어 새로운 발전 약속

“지난 4년간 동고동락해온 영주·영양·봉화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씀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박형수 국회의원이 19일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영주·영양·봉화 지역주

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보내온 확정안에 따라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확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직후 확정안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었고 교통과 지리적 인접성, 생활문

화권 등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재확정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두 달여 동안 비례대표제 문제, 의원 정수 문제 등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 때문에 선거구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당과 재차 협의한 결과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당의 대야 협상전략 등을 고려해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형수 의원은 새롭게 함께 하게 될 의성·청송·영덕·울진 주민들에게 “지

방소멸이라는 파고 앞에서 겨져가는 ‘의성·청송·영덕·울진’의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지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과 처신, 실력과 품격으로 군민들의 정치적 자존감을 높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앙과 지역에서 갖고 닦은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4개 지역 군수와 협력·소통해 의성·청송·영덕·울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 발전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협력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군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형수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로 20여년간 봉직한 후 대구고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21대 총선에서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윤석열후보 선대위 네거티브검증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 여의도연구원 감사를 맡고 있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영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종림 “생활인구증대 위한 혁신 정책 필요”

김병창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안 마련”

영주시의회 전종림(사진 왼쪽)과 김병창 의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14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전종림 의원은 ‘영주시의 인구정책 실패라다임 전환과 생활인구증대를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제 슬로시티 지정 제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전종림 의원은 영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하던 근시안적인 주민등록 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 위주의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풍기를 금계리 일원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 부석사, 소수서원 등 세계문화유산과 연결해 국내 최초로 문화유산과 농업유산이 결합된 복합 유산관광 지역으로 발전시켜 생활인구가 끊임없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육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풍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함께 영주시의 국제 슬로시티 지정을 집행부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웰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많은 지역들이 슬로시티에 주목하고 있고 슬로시티 지정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영주시에서도 공동체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더 나아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증대를 위해 국제 슬로시티 지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병창 의원은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병창 의원은 “e스포츠는 일부 연령층만 즐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한



나의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신(新)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처음으로 개최했고 98개 팀, 340여명이 참가 신청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영주시도 기존 대회의 규모를 키우고 정기적 개최를 통해 전국적인 대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내·국제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선비세상 컨벤션홀, 국민체육센터 등 기존 시설들을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동양대학교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e스포츠 교육 및 콘텐츠 기획, 대회 개최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e스포츠 관련 업계에서 가장 관심있는 주제는 ‘지역연고제’라며 “우리 영주시는 e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역량과 인적 자원, 시설 등 기반이 부족하지만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마케팅으로 프로계급단 연고지를 유치한다면 지역의 우수한 e스포츠 유망주 발굴과 육성으로 풀뿌리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관련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관광 및 연고팀의 고정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여상 기자 bk01410@naver.com



APEC 경주 유치 열기 뜨겁다… 전국 시도지사 ‘합심’

경주시의회 APEC 특별위원회
시도의회협 임시회에서 홍보 박차
광역단체의 적극 지지 강력 호소

경주시의회는 지난 15일 힐튼호텔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경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시도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장을 비롯해 이철우 도지사, 임종석 도교육감, 주낙영 시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시의회 2025 APEC 경주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APEC 특별위원회)는 전국 광역단체의 의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개회식에 참석해

전국 광역단체의회가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적극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동협 APEC 특별위원장은 “이번 시도의장협의회 개회식을 맞아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해 홍보에 전력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하며 “경주시의회에서도 경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니 개최지가 결정되는 날까지 경주를 향한 열렬한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의회 APEC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추진단과의 간담회에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경주 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의회지원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 wba112@daum.net

원전 소재 주민 안전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시급

원자력지시지시민단체협의회
국회서 1인 릴레이 시위 펼쳐

원자력지시지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19일 시위에 나선 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이달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또다시 2-3년 늦어지게 된

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 하루 빨리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라도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지시지시민단체협의회’에는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를 비롯해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 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준위방폐물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세대, 지역주민 부담증가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대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견협의회 등은 20여차례 특별법 제정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국회에서 전문가, 원전지역 주민, 산업계 등에서 500여명이 참여해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

문경시의회, 갑진년 첫 임시회… 23일까지 안전 15건 심의

시정보고·주요사업현장 점검
신성호·남기호 의원 5분 발언

문경시의회는 지난 15일 2024년 첫 임시회인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와 주요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5일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신성호 의원의 ‘문경 옛길 복원을 제안’, 남기호 의원의 ‘문경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전략이 필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16일은 문경에코월드 등 주요사업장 7곳에 대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했으며 19일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일부터 2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오는 23일 안전 의결을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8건

(의원발의 5건 포함), 일반안전 7건, 총 15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과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다.

황재용 의장은 “올해 문경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과 의정수행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의회, 공부하는 의회로 수동적인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생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행복을 함께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올해 10대 중점과제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10명의 의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향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 hyun0085@daum.net

청송군의의회 의원 간담회

군정 주요 현안 5건 논의

청송군의의회는 지난 13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사업과 현안 등 모두 5건의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사회복지과)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사회복지과) △민예촌 운영 재위탁 추진(관광정책과)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농촌활력과) △청송군·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

자 유치 MOU(업무협약) 체결(농촌활력과)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권태준 의장은 민예촌 운영에 대해 “고향을 방문했거나 지인이나 친구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군민이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성리 공룡 발자국 앞 도로가 위험하니 참고해 건설과장과 의논해 보길 부탁하며 안덕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로기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 구입비를 다음 추경에 반영 부탁드린다”라며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조영국 기자 wdr1211@hanmail.net

등 돌린 의사들… 대구도 ‘의료대란’ 초읽기

영남대병원 인턴·레지던트들 65명 사직서 제출, 대응책 고심 시 전역으로 파급력 확산 예상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고 있다.

19일 대구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

후 2시 기준 영남대병원 전공의 가운데 인턴 42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레지던트 119명 중 23명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161명 가운데 65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사직 처리는 되지 않았고 진료 차질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은 현재까지 없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전공의들이 오

전부터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현황 공개 여부는 병원 방침에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병원인 경북대병원 측은 “현재까지는 사직서가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 개별로 제출했을 수 있어 정확한 인원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전공의들도 오전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까지 모든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원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할지, 몇 명이 제출했는지 등 정확한 규모는 오후 늦게나 파악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는 인턴 47명과 레지던트 135명 등 전공의 182명이 근무하고 있다.

각 병원은 비상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뉴스1



생명 나누는 헌혈로 더 따뜻한 청송 만들기

공무원·기관 임직원·군민 함께 각종 건강검진 기회, 기념품 증정

청송군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사랑의 헌혈 운동’을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주차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함께하는 헌혈운동은 헌혈자 급감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혈액 수급을 극복하고자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헌혈자에게는 B형·C형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매독검사 등 다양한 건강검진의 기회와 자원봉사 4시간,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된다.

군은 지난해 4회에 걸쳐 헌혈운동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분기별로 헌혈운동을 추진해 헌혈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공무원 및 군민들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철곡소방, 화재·재난 초동대응책 마련 ‘최선’

대형 물류창고 옥내소화전 대상 위치시각화 진행 ‘안전사고’ 대비

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경북 현행 대비 철곡군 물류시설의 비율이 높아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철곡군 내 대형물류창고 옥내소화전 위치시각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쿠팡 물류창고와 2022년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많은 재산 피해와 소방관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와 같은 대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곡소방서는 철곡 지역 내 대형물류창고의 옥내소화전 위치시각화 및 피해저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물류창고 여건을 고

려한 옥내소화전 시각화 △물류창고 피해저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현장 컨설팅을 통한 관계인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관 서장은 “복잡하고 넓은 내부 구조를 가진 대형물류창고의 옥내소화전 위치시각화를 통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올바른 손 씻기로 독감 예방 쉽게~

안동,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겨울철 감염병 집중 예방 ‘노력’

안동시는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2024년 올바른 손 씻기 체험 방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 씻기’를 말하며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손 씻기를 통해 호흡기 질환의 20%, 설사 질환의 30% 이상 예방이 가능하지만 2023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는 경우는 11.2%에 불과했다.

이에 안동시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도 함께 안내해 집단발생 가능성이 크고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취약시설 6개소의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손 씻기 체험장비(뷰박스)를 활용해 손 씻기 전·후를 비교하고 손의 정결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키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숙 감염병대응과장은 “올바른 손 씻기는 셀팩신으로 언급될 만큼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감염병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의성군, 초등·중학생 ‘필수예방접종’ 독려

초 2017년·중 2011년 출생자

의성군은 학생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대상자는 초등학생 입학생 2017년생, 중학교 입학생 2011년 출생자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중학교 입학생은 △Tdap(또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만 대상) 등 3종의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내역 누락자는 접종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예방접종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실시

봉화군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사용본 거처를 말함)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며 이달부터 해당 사업의 예산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지원조건은 운행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며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지원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도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경주시, 효현동 일대 정화조 악취 싹 잡는다

60억 투입해 오수관로 10.6km 신설, 172가구 공공하수도로 연결
올 상반기 착공, 내년 12월 완료… 주민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경주시가 효현동 외산을 비롯해 외의마을, 경주대학교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정화조 악취 문제 등 고질적인 민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총 60억원 예산(국비 36억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10.6km를 신설하고 172가구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한다.

그간 사업대상지 일원은 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악취와 정화조 청소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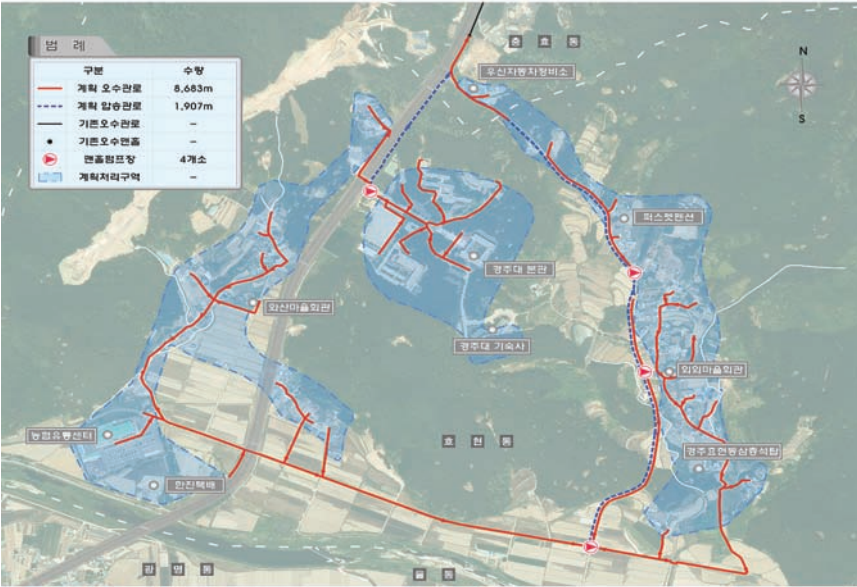
이에 신속한 하수도 확대 보급에 주력한 결과 올해 환경부 신규 국고보조 사업에 선정돼 ‘중요처리분구 하수관

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중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지 외 경주대 맞은편 원룸 등 기존 취락지구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편입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부분변경)이 승인되면 이 사업은 범위 확대와 실공사비 반영에 따라 총사업비가 140억원 정도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공공하수관로가 없어 악취를 참으며 생활했던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



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탐동 상수원으로 유입되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맑은 물로 처리하고 형산강으로 다

시 내보내 보다 맑고 깨끗한 친환경 녹색도시 경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민 자발적 참여로 활기찬 마을 만들어요”

주민(마을)공동체 공모 실시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접수

경주시는 2024년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일반공모(지역재생 및 공동체 기반조성) △기획공모(지역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 △계속사업(지난해 선정 완료된 사업 중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 등 3가지이다.

선정된 단체는 대상 사업별로 500만 원에서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역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3일 2회에 걸쳐 황촌마을 활력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최종 경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신청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양정로 241-1, 7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054-760-253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까지 112곳 공동체가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펼쳐왔다.

이동수 철도도시재생과장은 “주민(마을)공동체의 확산으로 시민 스스로가 소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했으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동궁원, 18기 식물아카데미 수강생 선발

수·목반 25명씩 3개월 10회 교육
내달 4~8일 누리집 선착순 마감

경주 동궁원은 19일 다양한 식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녹색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식물아카데미(1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물아카데미는 수요반과 목요반으로 구성되며 오는 3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3개월간 주 1회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수·목반 2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식물관련 교육과정으로 이론·실습 및 현장학습을 병행하며 생활원에, 야생화 관리, 약초와 발

효, 식물인문학, 꽃누르미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동궁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식물아카데미는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생활원에 분야 전문가를 습득하고 서로 간의 친목도 도모할 수 있어 교육회차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손장원 원장은 “따뜻한 봄, 기분 좋은 식물원의 향기 속에서 식물아카데미와 함께 식물을 알아가면서 일상 속으로 자연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로 서민물가 부담 ‘뚝’

경주시가 서민 경제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적극 나선다.

시는 19일 올 11월까지 전체 부서별로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착한 소비하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월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점심식사, 회식 등을 활용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서 업체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저렴한 가격, 깔끔한 위생, 품질상태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희망물품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월 최대 30t) △착한가격업소 인증 LED표창 제작, 방역소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비자들은 국내 9개 신용카드(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를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올해도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홍보에도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현재 경주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2곳, 미용업 4곳, 목욕업 3곳, 세

시,전체 부서별 월 1회 이상 이용
업체 홍보·시민 관심 유도 ‘온힘’

탁업 1곳 등 총 30곳이 지정됐다.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 게시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2025 APEC 경주에서”

전북면 자생단체협의회 총회
정상회의 유치 ‘한마음 한뜻’

경주시 전북면 자생단체협의회가 지난 16일에 열린 전북면 자생단체협의회 총회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다.

전북면 자생단체협의회 회원 23명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자생단체별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홍보할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각 단체 회장들은 단체회원들에게 경주 유치를 응원하는 휴대폰 통화 연결음을 홍보하고 환경정화활동,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손진열 협의회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가 경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전북면 자생단체협의회에서도 전북면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전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각 단체 협의회장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전북면은 앞으로도 민관이 하나가 돼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의미와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면민들에게 전달해 경주가 최종 도시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요리경연대회 ‘성료’

나만의 도시락 만들기예 8팀 참가

경주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7일 지역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요리체험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특기적성프로그램 요리교실, 제과제빵교실 수강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등 총 8팀이 참가했으며 요리 주제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할 나만의 도시락 만들기로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배경계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하고 맛있는 요리를 선보여서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예상보다 더욱 놀라운 실력을 보여줘서 앞으로의 특기·적성 요리교실, 제과제빵교실이 더욱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요리실, 악기연습실, 댄스연습실, 상담실, 대화의실, youtube방송실 등 실내시설과 풋살구장, 농구장, 공연장 등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요리, 국궁, 드론, 풋살 등 14개 과목의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홍준표 “TK신공항 SPC 구성에 사활 걸어라”

보상절차 필요없는 모든 공공건설사업 3월 내 조기발주 지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대책 수립으로 의료대란 만전
서문·칠성 야시장 재정비 통해 전국 대표 야간명소 조성 주문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시 주택국의 ‘2024년 공공건설사업 70% 이상 상반기 조기발주’ 보고를 받은 후 “최근 고금리, 자재가 상승 등 지역 민간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당초 70% 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 중 보상절차가 필요 없는 모든 사업은 3월 내로 조기발주하고 상반기 내 나머지 사업 발주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국의 ‘의대 정원 증원관련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보고 후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의료수

가, 단계적 증원, 지방의료원 설립 등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복지국에서는 비상진료대책도 철저히 수립하는 동시에 대구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구시의사회와 잘 협의해서 지역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는 등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대구마라톤대회 준비 상황’ 보고 후 “올해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상금에 걸맞게 초청 선수 섭외에 만전을 기울여 세계의 톱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환경수자원국의 ‘정월대보름 대비 산불방지 대응강화’ 보고 후 “논두렁 태우기, 야간 촛불기도 무속행위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습 및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경제국의 ‘2024년 서문·칠성 야시장 운영’ 보고 후 “서문 야시장의 버스킹 장소에서 저녁마다 언더그라운드밴드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해서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서문시장과 협의하라”며 “아울러 칠성 야시장은 신천 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은 “올 상반기 대구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TK신공항 SPC 구성”이라고 말하며 “비록 지난 1년간 실적이 미비했지만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에서 힘을 한데 모아 상반기 내 SPC 구성이 완료되도록 사활을 걸어라”고 강조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마음 속 고민, 친구와 함께 ‘톡톡’ 털어내요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레상담 연합회 동아리 운영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센터 내 교육실에서 포레상담 연합회 동아리를 운영했다. 포레상담 연합회 동아리는 군위 지역 내 중·고등학교 포레상담자들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포레문화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모임이다.

올해 2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모여 포레상담자들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포레친구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고 포레상담자 스스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친구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구혜영 센터장은 “포레상담 동아리를 통해 훌륭한 포레상담자들이 많이 양성되고 이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힘’ ... 달성군, 청렴 실천 결의 다짐

최재훈 군수 필두 결의대회 열어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단 구축

달성군은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방안 보고회 및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군수를 중심으로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단을 구축해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공직자의 적극적인 청렴시책 참여를 위해 군수 주재로 부서별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간부 공무원들은 부패 예방,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지위·권한 남용 및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의 내용



을 담은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달성군은 2023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는 청렴실천결의대회뿐만 아니라 부패 취약 요인 분

석 및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시 보고회와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 부서별 청렴도 향상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 청렴특별교육 등 체계적인 청렴시책을 시행해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재훈 군수는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청렴 달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시설관리공 북부사업소, 주말농장 분양

내달 3월 3일까지 무상 대여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소는 시민에게 도심 속에서 작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19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주말농장을 무상 분양한다.

올해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총 30구획으로 1구획당 10-13㎡이며 희망자 대상 무상으로 분양된다. 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dpfc.or.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말농장 분양은 19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컴퓨터 랜덤 방식으로 추첨해 1가구당 1구획씩을 배정하고 배정받은 농장에서 오는 4월 15일부터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문기봉 이사장은 “시민들이 주말농장에서 작물을 직접 재배해 수확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도심 속 친환경 힐링 공간이 될 주말농장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교통공, 본사 주차장 무료 개방 시간 확대

도시철도 환승 시 100% 요금 감면

대구교통공사는 20일부터 본사 주차장 무료 개방 시간을 확대하고 도시철도 환승 목적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상인동 대구교통공사 본사 주차장은 장애인구역 11개 면, 전기차구역 2개 면 등 총 407면의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개방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오전 9시로 확대하고 도시철도

환승 목적을 위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50%에서 10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여를 위한 공사 주차장 개방 확대 방안은 달서구청과 협의해 지역 주민편의, 골목상권 및 주차장 이용자들을 분석해 이뤄졌다.

김기혁 사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시간 확대·환승 차량 요금감면으로 지역 상권 및 대중교통 정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한반도 3대 도시 위상 회복 위해 대구여성이 함께 땀 흘릴 것”

대구여단협, 신년교례회 개최

(사)대구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년 대구여성 신년교례회’가 19일 지역의 여성 지도자 및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새해를 맞아 여

성계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고 대구 여성의 힘과 열정을 모아 지역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현악 3중주 앙상블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한명아 협의회장의 신년인사와 김선조 행정부시장의 신년사가 진행됐다. 이어 이만규 시의

회 의장과 강은희 시 교육감,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의 축사로 신년을 축하하고 주요 내빈들의 새해 덕담과 함께 축하떡 자르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명아 대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올해 역시 녹록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 때마

다 더욱 빛을 발하는 여성들의 지혜와 강인함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갑진년 새해, 여성의 힘찬 도전으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를 위해 언제나 함께 땀 흘릴 것”고 전했다.

이날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대구의 대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길에 여성 지도자들의 강인함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정보산업의 핵심기술!

(주)대신측량기술이 이끌어 갑니다!



(주)대신측량기술

DAESHIN SURVEY ENGINEERING CO., LTD

본 사

경북 포항시북구 중흥로267번길 16

TEL : (054)283-4870~1

FAX : (054)283-9915

경주지사

경북 경주시 태종로 685번길 31 2층

TEL : (054)624-2225

FAX : (054)771-2251

지적사업본부 본부장

오 연 진

HP : 010-3528-1335

E-mail : yunjin1335@naver.com

◆산업단지 확정측량

◆구획정리 사업지구확정측량

◆주택단지(아파트) 확정측량

및 준공현황측량

◆구획정리 사업지구 분할 및 경계복원 측량

◆골프장 현황 측량 및 확정 측량



www.dssurvey.net

공직분위기 쇄신해 ‘영양 대변혁’ 기틀 마련

오도창, 역동적 공약이행 ‘박차’
“노력없이 6급 승진 생각 말라”
인구조멸 돌파구 마련 위해 최선

■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감 팽배
영양군은 전국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외에도 반딧불이가 서식할 만큼 국내에서 손꼽히는 청정지역이며 지난 2022년 말 주민등록 통계 기준 100세 이상 장수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로 2023년 말 기준 인구수는 1만5661명에 불과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가 건축재정 기조 아래 몇 년 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하향식 배분에서 상향식 공모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기존 공직 시스템으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 영양군 발전 원동력, 결국 공무원

이에 영양군은 민선8기 후반기를 앞두고 제대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확신을 위해 조직 내 29%를 차지하고 있는 6급 공직자들의 중추적 역할 주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앞서 오도창 군수는 민선8기에 들어서며 84개 공약 중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신뢰 받는 군정 구현’이란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 계획도 마련했다.

오도창 군수는 “6급 팀장이 예전처럼 단순히 결재만 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 6급은 승진할 생각도 말라”라는 언급까지 했다. 또한 “팀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팀장이 팀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주간 6급 보직팀장들과 무보직 6급 직원을 대상으로 군정발전 관련 1인 1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번에 제출된 군정시책 보고서는 총 155건으로 조직 내 중추적 역할을 하는 6급 공직자들이 작성한 만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실행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시책들이 나왔다.

분야별 건수를 보면 △행정·관광(각 37건) △복지(18건) △농업(14건) △도시(15건) △환경(10건) △보건(10건) △교육(7건) △환경(5건) △교통(2건) 순이며 군은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우수 보고서 제출자에게는 군수 상장을 수여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출된 보고서 중 우수사례는 3월 초 발표회를 개최해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

하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민선8기 전반기에는 영양 대변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원동력이 될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 왔다면 후반기부터는 군정 역량을 집중해 군민과의 약속을 역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오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와 8·9급 직원 대화(4회) △부군수와 보직팀장 대화(3회) 행사도 실시했다.

또한 △간부회의의 보고방식 변경 △직원 기획역량 강화교육도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회 실시했으며 올해는 공약, 현안사업, 지시사항 등을 공유하는 ‘주요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영양미래 청사진 실행역량 ‘하나로’

오도창 군수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올해 군정 화두도 군민과 함께 손잡고 가자는 의미의 ‘휴수동행(携手同行)’으로 정한 만큼 공직 내부부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Z세대 공무원들의 톡톡 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최소 10년 이상 근무자로 다양한 공직 경험이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영양군의 과거와 현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역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 지성인 이들이 제시한 다양한 지역 발전 아이디어를 정책에 접목하는 것이 군수인 나의 책무”라며 “군민들께서 변화하는 영양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봉화국민체육센터, 명절 휴일에도 ‘구슬땀’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위해
LNG 전용 보일러 공사 진행

봉화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이 군민에 더욱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명절 휴일에도 근무해 보일러 공사를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화국민체육센터는 그간 LPG 보일러를 운용했으나 도시가스(LNG)가 공급됨에 따라 도시가스(LNG) 전용 보일러로 교체해 보다 효율적인 냉난

방공급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번 공사를 통해 교체한 도시가스(LNG) 보일러는 기존의 LPG 보일러와 비교해 40%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스 누출의 우려가 있는 LPG 보일러와 달리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권병희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숲속도시 봉화의 환경을 가꿔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안동, 중증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힘’

안동시는 민선8기에 들어 중증장애인가구의 돌봄 사각지대와 돌봄 부담

가중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돌봄·휴식 지원 서비스를 수립·시행했다.

▲ 공공부조가 손 닿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펴보는 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종합조사 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안동시는 긴급사유 발생으로 서비스 필요 시 즉각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국·도 지원사업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연간 150시

간 이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계속된 돌봄 가중으로 심신 기능 약화 가구에 심리적 안정 도모

중증장애인은 신체·사회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으며 가족 또한 계속된 돌봄으로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휴식(여행)지원 서비스를 연간 시행 중이다.

1인 기준 2박 3일, 최대 4인 가구까지 지원하며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 일부를 각 내역에 따라 실비보상한다. 올해부터는 지원내역을 세분화하고 신청서류 및 증빙의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휘날리는 도포자락 형상화 글꼴 ‘영주선비체’ 무료 배포

홈페이지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변경·왜곡 없이 상업적 이용
시, 전용서체 적극 홍보 집중

영주시가 선비 이미지를 담은 전용서체 ‘영주선비체’ 개발을 완료하고 19일부터 시 홈페이지(yeongju.go.kr)를 통해 무료 배포한다.

시의 전용서체 개발은 지난해 배포한 ‘영주풍기인삼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영주선비체는 풍요로운 문화유산인 품은 선비의 고장 영주의 도시브랜드와 선비가 가진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



은 서체로 한글 2350자, 라틴 95자, KS 심볼 985자로 구성됐다. 선비의 곧은

정신과 기품을 상징하는 것의 형태를 ‘ㅎ’에 표현하고 도포 자락이 휘날리는 모습을 ‘ㄱ’, ‘ㄴ’, ‘ㄷ’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영주선비체는 시 홈페이지 ‘영주의 상징’ 카테고리 내 ‘전용서체’ 게시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 문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단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모양을 왜곡·변형할 수 없다.

시는 서체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서체를 행사용 포스터·현수막, 안내판, SNS 홍보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

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남서 시장은 “영주시의 대표 정체성인 선비를 형상화한 서체 개발·배포로 ‘선비도시 영주’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대중적인 서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배포한 ‘영주풍기인삼체’는 유튜브, 예능 방송 등 영상 자막과 과자 포장지, 도서 표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예천군,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교육생 모집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과정은 농촌자원 전문가 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예천군 통합교육 관리 시스템을 통해 2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 일정은 오는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매주 3회(화·목·금요일) 총 15회이며 농촌자원개발관 조리실습실에서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전문 조리 기술 습득 및 관련분야 취업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상주시
SANGJU CITY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작전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복합타운 건설

결집된 유치 의지

‘법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친환경 미생물 활용 교육으로 농업 역량 쑥쑥

김천시, 배양실 사용법 등 교육
악천후에도 참여 만석 ‘큰 호응’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실현

김천시는 지난 15일, 16일 ‘친환경 미생물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생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과 새로운 미생물 배양실의 사용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차당 200명씩 사전 신청을 받아 시행된 교육은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 총 참석인원이 400명에 육박했다. 높은 출석률로 봤을 때 미생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는 친환경 농업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유용 미생물을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해 왔다.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혼합균(고초균+유산균+효모균) 총 5가지 미생물을 배양해 시민에 공급했으며 해마다 최대 공급량을 경신해 왔다. 급증하는 친환경 미생물 수요량에

맞춰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 지난 2022년~2023년 총 2년에 걸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고 대용량 멸균 배양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축된 미생물 배양실은 예년과 대비해 최대 250% 증가한 미생물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급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비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 용기를 소장에 자동 분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환경오염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진행된 ‘친환경 미생물

활용 교육’은 변화된 미생물 배양실의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더 원활한 미생물 공급계획과 활용 방법을 전달해 김천의 친환경 농업에 더욱더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다. 정한열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에 친환경 미생물 활용도를 높여 농가는 물론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는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기술센터가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구미, TK 최초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호탄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계비 혜택
연간 최대 14일까지, 상품권 지급

구미시가 대구·경북 최초로 근로취약계층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업무 외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교통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소득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신청인과 가구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시 재산 2억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1일 7만888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재취업과 지역 정착을 도와 모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익문 기자ub0104@hanmail.net

성주군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자세히 알려드려요”

주택 취득세·법인세·재산세 등
납부 기준 완화로 가계 부담 해소

성주군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중소기업 2개월)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시 분할납부 기한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기존 가산금, 증가산금의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변경됐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액의 3%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가산금)는 종전 동일하나 매월 추가로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의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채납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자동차세 선납 시 연세액 기준 할인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5%로 축소됐으며 내년부터는 3%로 그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한덕수 마음에 도장 ‘왕’
칠곡할매들과 이색 데이트 눈길

한덕수 국무총리와 칠곡군 8인조 할매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의 이색 로맨스가 화제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 청암중고 졸업식을 찾아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가 늦깎이 학생이 된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수니와 칠공주 할머니들이 준비한 축하 영상을 시청했다.

한 총리는 영상에 대해 “만학도들의 아이콘으로 널리 알려진 평균 연령 85세의 합창 그룹 수니와 칠공주 할머니들께서 졸업과 평생교육기관 무상급식 확대를 축하하는 합창 뮤직비디오를 보내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부하니 좋아 죽을 것 같다가도, 눈이 침침 당장 때려치고 싶다가도, 용기 내어 꿈을 향해 달려가자”는 등의 가사로 졸업식장에서 모두가 웃음이 터졌다고 소개했다.

졸업식 축하 영상은 칠곡 할머니들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한 총리의 요청으로 제작됐다.

한 총리가 늦깎이 동년배의 졸업을



축하하는 영상을 부탁하자 수니와 칠공주 할머니들은 흔쾌히 응했다.

할머니들은 직접 랩 가사를 쓰고 가사에 어울리는 안무를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 총리와 수니와 칠공주 할머니들의 남다른 인연은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니와 칠공주 할머니들은 전 세계

를 돌며 엑스포 유치에 나선 한 총리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자발적으로 응원 영상을 제작했다.

한덕수 총리는 “칠곡 누님들 고맙습니다”라는 감사 인사와 함께 개인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칠곡할매래퍼들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또 한 총리가 설 명절을 맞아 수니와 칠공주 할머니들에게 연하장을 보내자

할머니들은 “서울 동생님 억수로 고맙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수니와 칠공주 리더 박준순 할머니는 “총리님이 우리를 누님이라 했으니 우리도 총리님을 동생으로 생각하는”이라며 “동생은 서울에서, 우리 할매들은 칠곡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꼭 만나서 함께 랩을 때리자”고 제안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고령군민이라면 ‘물리치료’ 저렴하게 받자!

보건소 물리치료실 상시 운영

고령군은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 및 거동불편, 불능환자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상시 운영 중이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65세 이상 군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무료다. 유료 대상의 경우 초진 및 진료 시 1600원, 재진 시 5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만성 퇴행성관절질환 및 근육통, 요

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통증관리가 필요한 부위에 대해 온열치료 및 경피신경자극치료, 간섭파치료, 적외선 등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무릎관절 수술로 인한 구축예방 및 관절범위 회복을 위해 지속적 수동 운동기구(CPM)를 활용해 일상 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질병, 사고로 인해 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에게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대여기간은 한달이며 필요시 1회 연장이 가능해 2달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상주농기센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달 29일까지 원에 분야 전공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소속 대학의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농업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원활한 학기제 운영을 위해

상주지역 대학인 경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교육부 운영 규정에 따라 실습생 모집공고 및 선발 절차를 거쳐 총 3명의 대학생이 선정됐다.

실습생들은 농업기술센터 현장보급형 시험연구 스마트팜에서 8주 동안 스마트농업 시스템 이론학습 및 실습, 시험연구 실증포장의 재배작물 생육 관리, 약제방제, 수확 등 다양한 농업 분야 실무 경험을 익히게 된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조방낙지

대표 손 일 희

경주시 중앙로29번길 13

☎ 054-775-3002





(주)강산투어

대표 최 병 오

경주시 원화로 372

☎ 054-753-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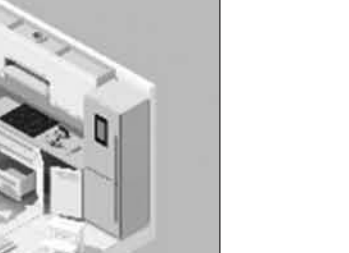


공간종합주방

대표 양 주 석

경주시 알천남로 128

☎ 054-774-1444



‘울진붉은대게축제’ 전 국민 입맛 취향저격!

22~25일 후포항 일원서 개최
지역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

게장 비빔밥·요트 승선 체험 등
온 가족 볼·먹·즐길 거리 풍성

울진군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후포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울진의 명품 대게와 붉은대게를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울진군의 대표 겨울 축제로 해마다 많은 사람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대게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게임에 승리하면 대게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대게 도적과의 전쟁’, 대게 빨리 먹기 대회인 ‘빨리 내 입속으로 들어오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대게 관련 상식 퀴즈 ‘대게 찌면 몇 그램이게?’ 등의 레이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색다르게 울진대게와 붉은대



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게 합인이벤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게 경에 체험’, 대게를 비롯한 울진의 수산물을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바다 보물 잡기’ 등을 통해 대게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요트 무료 승선 체험’,

‘문화콘서트’, ‘게장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대게 플래시몹’ 등의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과 ‘월송큰줄당기기’, ‘게줄 당기기’ 등 울진의 전통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울진군은 무엇보다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

도록 교통통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준비에도 철저히 하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는 군과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화합의 축제”라며 “재밌게, 즐겁게,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포항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지자체 최초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日 오염수 방출 지속적 모니터링
월 40건 방사능 검사 후 결과 공개
체계적 관리 체계로 발돋움 기대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수산물품질관리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난 7일 지정됐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검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받은 기관은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가 처음이다.

앞서 수협중앙회, 한국에스지에스(株), ㈜이마트 등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제5호’로 지정됐다.

포항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지난해 1월 수산물품질관리센터를 신설했으며 기초지자체(시·군·구) 최초로 방사능 검사 장비(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도입하고 방사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지역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센터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

물과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월 40건의 방사능 검사와 인근 연안 해수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해 오고 있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지역 내 수산물과 수산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수산물에 대한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해 왔다.

센터에서는 공인 검사기관으로서 지역의 영세한 수산 식품 및 가공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맞춤형 위생 검사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번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으로 양식장과 위판장에서 생산·어획되는 수산물

과 수산 원료 등에 대한 관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센터에서 지원하는 업무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생산과 유통으로 이원화된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동해안의 주요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지역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380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왔지만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현기 기자hghshin98@naver.com

경산시,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 해소 ‘집중’ 우리아이 보듬병원 사업… 평일 야간·휴일 운영기관 지정

경산시는 19일부터 평일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산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올해 1월 ‘경산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 사업’ 수행자를 모집한 결과 파티마연합 정 소아청소년과의원(중산동), 광장약국(중산동)을 선정해 협약을 맺었다.

우리아이 보듬병원은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평일은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아 청소년 경증환

자를 위해 진료할 계획이다.

경산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 사업은 지난해 7월 고향사랑기금사업 제안서 공모와 선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이 낳기 좋은 경산’이라는 슬로건과 결맞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경산시는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의료현장과 소통해 오는 4월경 읍·면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1차 의료기관과 파트너 약국을 추가 선정해 부족한 의료 혜택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산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파티마연합 정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두웅 기자kwondrumkakao@daum.net

청도, 주택화재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 도와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청도군은 화재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군의회가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군은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추진을 위해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는 최대1000만원 △반소(건물 30% 이상~70% 미만 소실)는 최대 700만원 △부분소(10% 이상~30% 미만 소실)는 최대 30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빈집 또는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종길 기자jik2929@naver.com



영천 서부동, 깨끗·안전한 보금자리 선물

영천시 서부동에서는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아름다운 봉사회의 재능 나눔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가구는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되지 않아 온수가 나오지 않고 폐가전 및 쓰레기를 모아두는 등 주택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서 집수리 사업비를 지원하고 아름다운 봉사회의 노력봉사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전기판넬 설치, 집 정리 및 청소 등 기본적인 보수가 이뤄졌다.

신정희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경북종합폐차장

이사 정 관 호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7

☎ 010-7755-2933



돈덩어리

대표 우 성 만

경주시 백률로 42

☎ 054-773-5025



김경희난타연구소

대표 김 경 희

☎ 010-3953-7576



안동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만들기 ‘온 힘’

자동화 시스템 도입·시설 현대화
인력 충원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
기후변화 선제 대응 1611억 투입
과학영농·유통·농업 발전 ‘시동’

안동시는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가 경영 안정 및 미래농업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올해 농업의 전문화와 인력 충원, 과학영농과 미래농업 추진, 농축산물 유통 선진화 등에 총 1611억원을 투자한다.

또 농가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4억원)를 운영한다.

지난해 258명의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근로자가 지역 내 농촌 현장에 배치됐으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570명이 배정심사를 통과해 모집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2개 농협(90여명)이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수시 공급하고 임대 농기계 45종 154대를 구입해 발농업 기계화를 촉진화 하고 배송서비스를 확대해 연 2200건 이상의 배송을 목표로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용 절감에 노력한다.

신기술 보급 및 다양한 농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진흥 시범사업 84개(66억원)를 추진하고 5500여명을 대상으로 20개 과정의 소독품, 목별 전문교육(3억6000만원)으로 체계화된 농업인력 육성을 도모한다.

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브랜드 쌀 재배단지 조성(1800ha, 24억원)하고 조사로 전문 재배단지 확대(40ha, 8억5000만원), 지향 전문생산단지 조성(2ha, 4억원) 등을 추진해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섬유·종실용 헴프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50억원), 노동력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스마트 기반 조성(4억원), 생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7.7ha, 9억2000만원)을 추진해 첨단화된 농업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252억원), 구역사부지에 농축특산물 종합쇼퍼단지 조성(100억원), 안동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1억5000만원), 농특산물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

개선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고 판로를 개척한다.

축산분야에서는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8000만원), 우수한우 혈통 보존사업(2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대규모축장 폐쇄 후 예상되는 모돈 출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모돈 도축장 및 육가공 공장을 증축(168억원)한다.

권기창 시장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인력 충원, 각종 지원 등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고 헴프 산업 및 스마트농업 육성 등으로 과학영농 활성화 및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울릉 꿈나무어린이집, 급식관리 잘했다

식생활 영양·위생·안전 관리 호평
우수 어린이급식소 인증·현판 수여

포항시, 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 내 등록된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 관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20개소(21~99명 10개소, 20명 이하 10개소) 어린이급식소에서 ‘우수 어린이급식소’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꿈나무어린이집은 이번 평가에서 식생활 영양 관리 및 위생·안전관리에 우수한 점수를 받고 급식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 어린이급식소로 선정됐다.

최윤정 원장은 “어린이집 조리실 관리 및 조리실 직원들과 정기적 지도점



검을 통해 관리를 해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감사함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위생·안전·영양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한권 군수는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식생활 도모를 위해 급식 관리 수준을 향상 및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장애 시동생 극진히 살핀 홍정순씨, 상주향교 효열부 표창

자애의 표상이 돼 발전자로 선정
내달 14일 표창 축하·부상 수여

상주향교는 지난 16일 상주향교 명륜당에서 ‘2024(갑진)년 제6회 상주시·상주향교 공동 효열(孝烈) 발전자(拔薦者) 심사’를 했다.

발전자는 상주시 무양동에 거주하는 홍정순(74·여)씨가 발전됐다.

효열부 표창은 향토기업인 ㈜동천수(대표이사 주재현)의 후원에 따라 올해 여섯 번째로 상주향교 회중에서 상주시장과 상주향교 전교 공동으로 표창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추천은 이상무 전교, 수석장인의 조성연, 김명희, 노대균, 조우희, 김진수, 조재석 등의 추천이 있었다.

이날 상주향교에서는 이상무 전교에 심사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괄목상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와 공적 개요 설명이 있었다. 이어 심사위원장이인 이 전교를 비롯해 채현식(함창향교 전교),



김홍배(상주문화원장), 금중현(원임 전교), 김명희(성균관유도회 상주부장), 노경순(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성성호(상주시의회 총무위원장), 서동주 상주시 행정복지국장, 조재석 사회교육원장 등 9명의 심사위원의 심도 있는 발전 심사를 거쳐 발전자를 최종 선정했다.

시상은 오는 3월 14일 춘계 석전대회를 마치고 오후 12시에 명륜당에서 상주향교 회중을 대표해 강역석 시장과 이상무 전교 공동명의로 표창 축하와 부상(7점 반상기, 제기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 축자는 조재석 사회교육원장이 짓고 소파 윤대영 서예 작가가 쓸 계획이다.

이상무 전교는 “발전자로 선정된 홍정순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지적 및 청각장애 2급)를 가지고 있던 59세의 미혼의 시동생을 20여년 동안 형수(兄嫂)로서 극진하게 보살펴 온 요즘 보기 드문 자애(慈愛)의 표상(表象)이기에 발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맞춤형 행복민원실’로 시민 만족도 UP

영주, 민원행정 편의 시책 추진

영주시는 올해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행복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 중심 소통·공감 행정으로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운영하고 있다.

시청 민원실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인 전용 컴퓨터·복사기·팩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시청 내·외부 8곳에 도움벨을 설치했다.

또 민원 통역 서비스 운영 및 인공지능 통·번역기 및 민원 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비치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등 민원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다.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19개)를 비롯한 25개소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돕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총 119종이다.

시는 평일 근무 시간대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8시까지 시청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권민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업무가 가능해 시민들이 바쁜 일과시간이 아닌 퇴근 이후 한결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 △민원처리 문자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봉화, 상반기 평생교육 수강생
선착순 신청 접수… 23일까지

봉화군은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24년 상반기 개강 예정인 평생교육강좌는 생활목공예, 웰다잉지도사 양성과정, 재미있는세계명화이야기, 중국어회화(중급반), 핸드드립, 스마트폰초보탈출하기, 기공체조과정이다.

해당 강좌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군민행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기공체조과정은 민관의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시설확보를 위해 봉화군노인복지관과 협력해 노인복지관에서 세대통합 시니어 평생학습지원과정으로 운영된다.

수강신청은 평생학습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군민은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방법과 강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평생학습 누리집 내 공지사항 또는 수강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경북전문대학교, 전문학사·학사 997명 학위수여식 개최

경북전문대학교가 지난 16일 본교 대강당에서 ‘제51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해 997명의 전문학사 및 학사를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학위 간호학과 168명,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사회복지

학과, 유아교육학과, 철도건설공학과, 항공전자정비공학과, 철도전기공학과, 전문학사학위 617명, 산업체 위탁과정 55명 등 총 997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학위수여식에는 최재혁 총장, 김필

목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과 졸업생 가족 및 재학생 등이 참석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최재혁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역사의 개척’이라는 창학이념 아래 조성

의 과정을 이수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의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함을 축하한다. 졸업은 결승선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도전을 위한 출발선임을 되새겨 실력과 지식뿐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의 인성을 갈고닦아서 승격한 인품을 갖춘 미래사회의 핵심 인재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 병 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제2의 전성기’ 여는 영주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8월 착공

36만평 규모로 2964억원 투입
기계·경량 등 16개 업종 유치
올 5월 협의 보상, 2027년 준공
하드웨어 건설·기업유치 힘써
연간 76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
4700명 직·간접 고용 창출 기대

영주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제2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밝혔다.

영주 철민베어링 국가산단은 총사업비 2964억원을 투입해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118만5971㎡(약 3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베어링(전·후방 포함), 기계, 경량 소재 등 총 16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 인구증가,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 미래산업의 핵심 부품 기술 자립화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어링 국가산단은 영주시가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주력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 10월 지방 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통과, 2021년 3월 사업실
시협약 체결, 2022년 4월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과 지난해 8월 국토부
최종 승인까지 지역 안팎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시는 국가산단의 성공과 빠른 조성을
위해 현 5월 협의 보상을 시작으로 8월
착공, 오는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인프라 구축**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
엇보다 기업 유치가 중요한 만큼 하드웨
어 건설과 더불어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영주에는 지난 2018년 준공된 국

내 유일의 베이킹 전문 연구기관인 하이테크베이킹시험평가센터와 경량소재용 복합기술센터 등 이미 입주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베이킹제조기술센터와 경량소재표면처리기술센터를 추가로 건립해 국내 최대의 베이킹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춘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동양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기계공학과'를 신설하고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학계 기초지식, 3차원 설계, 기계 제작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실무형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시는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이룰 유망기업 유치에 달려있다는 판단하에 베어링 제품의 설계부터 성능평가, 제품화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全)주기 맞춤형 기업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의 입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투자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베어링 중심도시 영주, 제2의 전성기로 도약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연간 76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4700여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를 통해 1만여명의 인구조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 인재가 모여들기 마련”이라며 “영주는 물론 대한민국 부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굳은 각오를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영주시가 앞으로 소재부품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여상기자bk01410@naver.com

안동시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박차

관련 경쟁력 강화 위한 포럼 열어
전문가 다양한 의견·아이디어 제시

안동시는 지난 14일, 15일 이틀간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국가 백신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미래방향 공동 포럼'에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이 적용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산업화할 특화단지를 공표 중이다.

안동시는 바이오·백신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 구

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질병청, 국제백신연구소, 아동대거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경북지역의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첫날(14일) 주제 강연으로 △이유경 공공백신개발센터 과장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역할 및 미래가치' △성병권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이사장이 '미래감염병 대응 백신 상용화 기반 기술' △송환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이 '글로벌 백신 동향 및 국제백신

연구소 협력방안' △임재환 안동대학교 교수가 '안동백신클러스터와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강연을 펼쳤다.

이튿날(15일)에는 △조동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팀장이 '안동 백신산업 클러스터 소개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전략' △권오승 경북지역평가단 팀장이 '국가산단중심의 쿼스타트 사업' △김성준 한국화학연구원 박사가 '화학연구원 현황 및 연계협력 방안' △고경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황 및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위



한수원, 원전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생성형 AI구축...안전·효율성 높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9일 네이버클라우드와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급원에서 '한수원 특화 생성형 AI(인공지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한수원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에 원전 운영 혁신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40여년 이상 축적된 원전 운전 경험 자료와 각종 절차서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전지원, 건설·운영 단계에서의 규범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인공지능이 안내하도록 해 원전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각종 문서 작성과 회의록 요약 등 개인 비서 기능을 통해 인공지능과 합

에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수원 특화 생성형 인공지능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양사는 협약을 통해 원전사업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이터의 보안성 확보와 한수원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주호 사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원전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원전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보안과 성능이 검증된 하이퍼클로바X를 통해 원전 운영의 혁신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

세계인 입맛 잡은 '예천쌀' 올해 첫 미국 수출길 올라

예천군은 예천쌀 38t이 올해 첫 수출 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개포면 경진리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김학동 군수, 최병서 군의장, 진종문 NH농협무역 대표이사, 이달훈(예천)·이인진(지보)·윤동훈(남예천) 농협조합장, 윤여호 예천조공대표, 수출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적된 예천쌀은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도정·가공한 쌀로 총 38t 규모이며 NH농협무역을 통해 미국 수출길이 오르게 된다.

예천군은 지난해 총 1300여t의 예천



쌀을 수출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소비자들 입맛을 사로잡으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앞으로 수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예천군이 농산물유통망 확대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확보에 집중해 온 결과로 예

전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에서 생산된 쌀이 품질과 맛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갑진년 새해부터 세계 최대 식품 소비시장인 미국으로 수출돼서 매우 기쁘

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농산물 판매 시장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전 농산물 수출 물량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칠곡!!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제공

답례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기부 바로가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 칠곡군 세무과 ☎ 054-979-6244

의성,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



의성군은 지난 16일 의용소방대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봉양남성의용소방대장 외 1명의 이임 대장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신임 의용소방대장으로 봉양면 김상철, 안계면 김경환 대장이 취임했다.

김경환 대장은 신임 대장을 대표해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주수 군수는 이임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대장에게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솔선수범해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문경 동로면 새마을회, 신년하례회



2024 갑진년을 맞이해 문경시 동로면 신년하례회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유도회동로지와 봉사단체 두들림(Do Club)이 공동주최하고 동로면 새마을회의 후원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동로면 새마을회는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내빈 및 어르신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떡국, 떡, 과일 등을 준비했다. 정국진 협의회장은 “뜻깊은 자리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 봉사를 하게 돼 매우 기쁘고 부족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현기자hyun0085@daum.net

경주 북천변을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자!

서라벌RC·온동네RCC 환경봉사

국제로타리 3630지구 서라벌로타리클럽(이하 서라벌RC, 회장 최진열)과 온동네로타리지역사회봉사단(이하 온동네RCC, 단장 여경화), 이경희 경주시의원, 양현두 황성동장은 지난 17일 북천변 황성예술길 일원에서 수국과 맥문동이 여름과 가을에 아름다운 꽃을 맺을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고 꽃나무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호미질을 했다. 황성동이 지역구인 이경희 시의원은 평소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솔선수범 해결해 왔으며 이날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라벌RC와 온동네RCC가 북천변 황성예술길에 심겨진 수국과 맥문동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함께 호미질을 하며 꽃들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서라벌RC는 무료급식소 이웃집 급식봉사, 형산강 수변정화활동, 황성동에 소재한 간도 등 사적지 주변 쓰레기줍기 활동, 도로변 잡초제거 봉사, 갯뒤마을 공용주차장 청소 및 관리, 차량에서 쓰레기 버리지 않기 캠페인, 저소득 가정 어린이 장학금 전

달,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국제로타리 재단에 기부 활동, 헌혈 활동, 사회복지법에 생필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경화 단장은 “봉사는 타인을 위한 아름다운 행위도 되지만 자신을 더욱 단련해 스스로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멋진 활동으로 우리 온동네 봉사단은 경주의 온동네에 봉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봉사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 경주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더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상청회, 상주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꿈 ‘응원’

상청회(상주를 사랑하는 청년회)가 지난 16일 상주시 드림스타트 대상 10가구에 5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지원했다. 상청회는 지난 2017년에 결성된 단체로 저소득가구 연탄배달, 어려운 이웃 돕기 일일찾집 운영, 농촌일손돕기, 독거노인 주택 청소, 헌혈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위섭 회장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신학기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학용

품을 준비했다”며 “아동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신학기를 맞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상주시 아동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찬원기자changwan12@naver.com



봉화 춘양면 운천장학회, 인재 육성 ‘힘 보태’



봉화군 춘양면 운천장학회가 지난 16일 총회 및 2024년도 우수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성철 회장은 “지역의 인재들이 성장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운천장학회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춘양면, 법전면 등의 장학생들에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정휘영기자jhy4430@hanmail.net

영양 일월청년회, 경로당 어르신에 위문 선물



영양군 일월청년회는 19일 만내 25개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음료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의견을 나눴다. 일월청년회는 현재 20명의 회원으로

창설 이래 24년간 연초 꾸준히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 새해 인사를 드리는 등 지역 내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고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꾀하는 데 열성을 다하고 있다. 김경태기자tae66611@naver.com

동 정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입학 OT 개소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20일 오후 4시 30분 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열리는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입학 오리엔테이션 개소식에 참석한다.

산불대응센터 방문·관계자 격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일 오후 3시 20분 천북면 신당리 소재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최기문 영천시장은 20일 오후 2시 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되는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다.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오도창 영양군수는 20일 오후 2시 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되는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다.

달성시장연합회 정기총회·이취임식



최재훈 달성군수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열리는 달성군이장연합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김천 양금동, 지신밟기 행사 성료



김천시 양금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6일 양금포동농악단 주관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양금동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안녕기원제와 지신밟기 행사를 했다. 양금포동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양금동 단제장과 통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문 낭독을 시작으로 동장과 단제장이 차례로 절을 올리며 동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또한 양금포동농악단의 신바람 나는 풍물소리를 앞세우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양금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을 기원했다. 백순식 단장은 “갑진년 한 해 동민들의 안녕을 기원함과 동시에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kgs5149@naver.com

2024 경주문화유산해설사교육

수강생모집

운영기간	2024년 3월 7일 ~ 6월 27일(매주 목 / 16주)	구분	시간	강의장소
수강료	100,000원	오전반	10:00~12:00	서약문화공간 (경주시 서약3길 14)
계좌번호	농협 351-1136-1107-13 (신라문화원)	저녁반	19:00~21:00	신라문화원 교육관 (경주시 금성로 254, 축협 2층)
문의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01 신라의 통일과 화랑

날짜	세부 주제	강사
3월 07일(목)	신라의 통일과 화랑	주보돈 교수 전 경북대 사학과 교수 제12대 경북대 박물관 관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3월 14일(목)	진흥왕	
3월 21일(목)	김춘추	
3월 28일(목)	김유신	

02 신라의 불교 공예

날짜	세부 주제	강사
4월 04일(목)	분황사 석탑의 사리장엄구와 선덕여왕	한정호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전 동국대박물관 전임연구원 전 통도사성보박물관 수석연구원
4월 11일(목)	황룡사 구층탑 사리장엄구	
4월 18일(목)	전 황복사지 석탑과 나원리 석탑의 사리장엄구	
4월 25일(목)	불국사 석탑의 사리장엄구	

03 신라의 석조 미술

날짜	세부 주제	강사
5월 02일(목)	석탑 1	신용철 관장 양산시립박물관 관장 울산박물관 운영위원 통도사 본말사 문화재위원
5월 09일(목)	석탑 2	
5월 16일(목)	승탑	
5월 23일(목)	당간지주와 석등	

04 유학의 역할

날짜	세부 주제	강사
5월 30일(목)	금오산에 깃든 신라문화	오상욱 원장 경북고전번역연구원 부산대 강의 교수
6월 13일(목)	운곡서원에서 회재학을 익히다	
6월 20일(목)	원사정재와 유학의 계승	
6월 27일(목)	경주유람기로 읽는 문화유산	

주관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후원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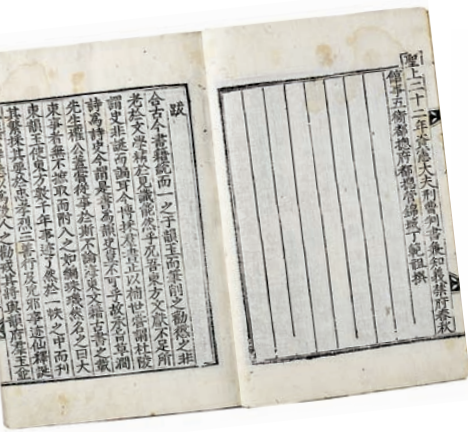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서 잠자던 韓 보물 ‘대동운부군옥’ 발굴

예천박물관, 佛학술관 소장 확인
한국 최초 백과사전의 목판본
당대 저술 서적들 완벽 소개해
서적 연구 참고서로 가치 높아

예천박물관은 초간 권문해가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보물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이 유명 고등학술기관인 ‘폴레주 드 프랑스’에 소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530년 설립된 ‘폴레주 드 프랑스’는 ‘폴레주교수단’과 ‘프랑스 학사원’의 추천을 받아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강의하는 곳이다. 국내에는 지난해 12월 박대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가 새로운 판



▲대동운부군옥 목판 및 고본 중 목판
◀대동운부군옥 목판본

개토대왕비 탁본을 발견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특히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은 지난 1890년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관에서 근무했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조선의 고서 현황을 정리

하면서 수집했던 것으로 그의 저술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eenne)’에서 한국 최고의 서적으로 평가한 책이다.

또한 그는 한국의 인쇄술을 극찬하면서 ‘직지심체요절’을 가장 흥미로운 자료로 꼽았고 ‘대동운부군옥’은 당대까지 저술된 다른 서적들을 완벽하게 소개한 책으로 한국 서적을 연구할 때 가

장 많은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박물관은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이 프랑스 외에도 일본 황실의 문서나 자료 등을 관리하는 궁내청(宮內廳) 서릉부(書陵部)와 일본 국립공문서관인 내각문고(內閣文庫) 등에 소장된 사실도 확인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한말 프랑스 외교관이 주목했고 일제강점기 조선 3대 천재로 불렸던 최남선이 지난 1913년 재간행을 시도할 만큼 유명세를 지닌 책이지만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며 “올해에는 학술연구 등을 통해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보 승격을 추진,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A4에 담긴 일상 ‘김재홍의 낙서수집’

28일까지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다양한 순간 그린 드로잉 200점

달성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참꽃갤러리에서는 지난 1월 전시지원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과정을 거쳐 총 7팀을 최종 선발했다. 그 첫 번째 전시로 김재홍 작가의 개인전 ‘낙서수집’이 이달 28일까지 참꽃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김재홍 작가는 대구예술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다수의 개인전·단체전,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정체성과 실험적 예술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번 개인전을 통해 창작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채로운 일상 속 풍경을 A4 사이즈의 종이 위에 드로잉 기법으로 구현, 예술이 감정과 소통의 표현 수단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누구에



게나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찰나의 순간들이 담긴 작품 200여점을 선보임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저마다의 일상을 사유하고 기억해 보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낙서수집’은 군청 내 참꽃갤러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두 작품을 동시에… 대구시립무용단-현대무용단 ‘더블빌’

대구문화예술회관, 국립단체 협업 공연
24일 오후 3시 ‘대구보디’, ‘정글’
젊은 감독들의 선 굵은 기획 선배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국립단체 협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두 작품을 단 하루 동시에 선보이는 대구시립무용단X국립현대무용단 ‘더블빌’을 오는 24일 오후 3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공립 현대무용단체인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내 최초의 국공립 현대무용단체인 ‘대구시립무용단’이 같은 날 두 공연을 올리는 ‘더블빌(Double Bill)’로 대구시민을 만난다.

먼저 대구시립무용단의 ‘대구보디’(DaeguBody, 안무 최문석)는 ‘대구춤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대구만이 가지는 개성과 특성을 체화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의 공존과 순환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이들의 조화를 통해 사람(Body)과 도시(Daegu)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인간의 몸이 경험한 세월이 곧 역사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경험의 배경을 가진 몸과 생각들이 어우러짐을 춤으로 풀어내며 미래 대구에 대한 메시지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초연 당시 라이브 음악을 선보였던 독일 출신의 퍼커셔니스트 요스턴블(Joss Turnbull)과 가야금 연주자 김지효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국립현대무용단이 선보일 ‘정글’



(Jungle, 안무 김성용)은 지난해 제4회 국제현대무용제(MODAFE)의 공동 개막작이다.

작품은 내면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곳이자 가식과 허영이 없는 공간인 ‘정글’을 드러낸다.

고유의 역사성을 몸에 새긴 각각의 무용수는 예민한 감각들을 온전히 깨워 자신만의 방법으로 주어진 자극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관객들은 이들의 움직임들을 통해 삶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생의 치열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두 작품은 강렬한 움직임을 통

해 서사를 총총하게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국내 평단과 관객에게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최고의 공연이다.

특히 두 무용단을 각각 이끌고 있는 김성용 예술감독과 최문석 예술감독의 취임 첫 작품이자 젊은 감독들이 선보이는 선 굵은 기획과 포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

관객은 이번 공연을 통해 왜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 무용작품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지, 왜 호평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다.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이며 누리집(daeguartscenter.or.kr)과 전화(대구문화예술회관 053-606-6135, 인터파크 콜센터 1544-1555)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희철 관장은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시간과 역사를 배경으로 진실을 탐구하고 우리의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작업”이라면서 “최고의 단체들로 손꼽히는 대구시립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 작품의 더블빌을 통해 관객은 인간의 몸으로 전하는 카타르시스와 동시에 색다른 사색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안동오케스트라·합창단’ 참여하고 힐링~

21~23일 OC, 26~29일 합창단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올해 문화예술교육사업 ‘안동꿈의오케스트라’, ‘안동청소년오케스트라’, ‘마카다안동시민오케스트라’, ‘안동청춘합창단’의 단원을 21일~23일(오케스트라), 26일~29일(청춘합창단)간 모집한다.

‘안동꿈의오케스트라’는 3~6학년 초등학교생이 대상이며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기른다는 엘시시스템 철학으로 악기를 처음 접하는 아동들이 여러 악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안동청소년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꿈의오케스트라의 상위 사업으로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마카다안동오케스트라’는 안동시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들이 전문 강사의 지도를 통해 합주 활동을 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안동청춘합창단’은 50세 이상 시민이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의 하나로 수준 높은 클래식을 접하고 합창단으로 활동하며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840-3600)로 문의하거나 누리집(andong.go.kr/a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포항시립도서관 독서회원 모집 연령대별로 누리집서 신청 접수

포항시립연일도서관에서 20일부터 올해 독서회의 회원 모집을 시작한다. 독서회는 도서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에게 지속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모집 연령대의 포항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어린이 독서회는 초등학교 2~3학년

15명, 4~5학년 15명을 구분해 모집하고 청소년 독서회는 초등 6학년~중학생 15명, 성인 독서회는 일반 시민 15명을 모집한다.

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관련 문의는 전화(054-270-5696)으로 하면 된다.

도병술 관장은 “지역의 여러 연령대 시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 독서회를 운영하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문화생활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기자hshin98@naver.com

청룡의 힘으로 새로운 청도건설

2024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2024. 2. 24.(토) 12:00 ~

청도천 둔치

※ 읍면 풍물경연대회 13:00

청도를 새롭게!
주민을 하나로!

주최 청도군

주관 달집전승보존회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진심 공평 심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위해 언제나 당신 곁에

내 곁으로

내 곁 의료

